

주파수 공용통신(TRS) 서비스 방식, 권역별 자율 선택보장 돼야

본 회

1. 건의 요지

지역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방식은 디지털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디지털 장비개발 추진상황 등 시장여리에 따라 당해 지역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방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되, 우리나라의 지역 TRS 주파수 특성으로 인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아날로그방식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개선(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편집자 주) 본고는 본회가 지난 2월 23일 정보통신부, 통산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한 내용이다. 즉 주파수 공용 통신(TRS)에 관한 지역사업자의 시스템 방식이 디지털방식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이 아닌 지역 TRS의 시스템 방식은 당해 지역 사업자가 지역특성과 장비 개발 추진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제2편 3. 시스템의 방식)

- 현행 : 주파수 공용통신의 시스템방식 : 디지털방식
- 개선(안) : 주파수공용통신의 시스템방식 : 디지털방식
 - 단, 지역사업자는 주파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주파수 대역 디지털 방식 장비 개발추진 상황과 지역별 특성, 가입자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서비스 권역별로 당해 지역 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식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1995.12.15) 제2편 허가신청서류 작성 전제조건

3. 통신망간 접속 및 정산

- 주파수 공용통신의 시스템 방식 : 디지털 방식

4. 역무별 사용 주파수

- 주파수 공용통신(TRS)
 - 전국사업자 : 811~821MHz / 856~866MHz
 - 지역사업자 : 376.5~381.5MHz/394.5~399.5MHz

3. 건의내용

1) 국산개발장비의 판로 확보 지원으로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의 그동안 정책방향에 따라 380MHz용 아날로그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해온 업체로서는 판로확보에 절대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LG정보통신, 국제전자공업 등의 국내업체들이 아날로그 시스템 방식의 장비 및 단말기를 정부의 개발지원자금과 자체자금 등 막대한 개발비와 인력 및 시간을 투여하여 어렵게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지역사업자의 시스템도 디지털방식으로 결정하므로써 외국시장마저 없는 제품인 점으로 인해 판로확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발업체들의 투자비 회수 불가능 뿐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마저 상실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통신기기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인 요소

“고도 통신서비스의 조기도입과 활성화”라는 목표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국내 통신기기 산업기술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서비스 도입 정책이 요망된다.

380MHz 대역의 디지털 장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바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서비스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과 같은 국내 기술수준에서 지역사업자를 디지털 방식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실시케 함은 디지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외국업체에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케 할 뿐 아니라, 통신시스템 기술의 특성상 동 분야에서는 예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내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기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서비스 도입을 적절히 해야만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3.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보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부가 통신사업자를 복수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코자함은 독점에 의한 폐해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적향상 등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며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취지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역사업자의 시스템방식을 380MHz 대역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상용화 경험이 많은 전국 사업자의 800MHz 서비스 개시 시기에 비해 상당 기간 늦어져 이러한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보인다.

TRS 장비 제조업체인 모토롤라, 지오텍, 에릭슨 US사 등은 세계 공통의 800MHz 대역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 개발 중이나 380MHz 대역 디지털 시스템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38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것도 지역사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이다.

만일 개발에 착수한다해도 개발 완료가 되어 상용화될 수 있기까지는 적어도 2년여가 걸릴 것이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 전국 사업자와 서비스 개시 시기는 적어도 1년은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사업의 특성상 전국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지역사업자가 서비스 개시 시기를 단 몇개월만 늦게해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더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부

터 1~2년후면 CT-2, PCS 등의 경쟁서비스가 거의 동시에 개시될 것이며, 디지털 이동전화의 발전 및 문자 및 양방향 무선호출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조기 개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800MHz 대역 디지털 시스템의 표준화가 '96년 5월경에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대역의 장비가 '97년 중순경이나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380MHz대역 디지털 장비의 800MHz 시스템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 개발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한 개발의 지연은 물론이고 시장의 협소와 독점적 지위로 인해 장비와 단말기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지역사업자가 전국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예측 가능한 기술정책의 구현

정부는 '94년초 380MHz 대역 TRS 주파수를 배정하고 세부적인 기술조건 등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95년 하반기까지 펴 왔다.

이에 업계는 380MHz 대역 아날로그 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금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결국 정부정책을 믿고 묵묵히 따라온 기업들로서는 큰 어려

움에 봉착케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만일 일찍부터 정부가 380MHz 대역 TRS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결정하고 정책을 펴왔다면 관련기기 업계로서는 디지털 장비를 착실히 준비해 왔을 것이며, 지역 사업 희망기업들로서도 지금보다는 안정된 상황에서 사업 참여를 활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 온 업계의 노력에 부합하고, 앞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보완이 절실히 요망된다.

5) 규모의 경제 구현 및 중복 투자 우려 논리에 대한 대안

경제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일 것이며, TRS 지역사업의 경우도 해당지역의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날로그 방식 만으로도 충분히 향후 수년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역까지 디지털 방식이 가입자 수용용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투자비가 들고 가입자로 하여금은 고가의 단말기를 쓰게 하는 사업을 하게 함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날로그 시스템 도입후 디지털 장비가 개발되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동전화의 경우도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다가, 디지털기술이 개발된 후 기존의 아날로그 사업자는 아날로그/디지털 겸용(듀얼모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케 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증가 추세와 기술의 안정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무선호출기 서비스의 경우도 최초의 호출음 서비스 방식에서 전화번호 표시서비스 → 음성사서함 및 문자서비스 등으로 시스템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서비스가 다양화 및 고급화되고 있다.

따라서, TRS 서비스의 경우도 우선 개발되어 있는 아날로그방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향후 디지털 시스템 개발추세와 지역특성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 도입시기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WTO 체제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주파수 차원의 한계성과 좁은 면적에 비해 높은 인구밀도, 미·일 등 선

세계 주요 컴퓨터업체의 세계화 전략 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력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통신 및 방송서비스 기술방식을 디지털로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통신 기술수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정부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진흥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업계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으며, 업계로서도 이에 적극 부응하여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TRS 사업의 경제규모가 작고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개발된 장비도 없는 상태이다.

지역사업권에서 당해 지역중소기업 위주로 사업권을 부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진 통신사업자 허가에 대한 기본방침을 충실히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전국망 사업자들과 서비스 시기가 늦어지지 않고 적정한 투자비가 들며, 소비자로 하여금 알맞은 단말기 가격 및 이용요금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어렵게 개발한 국산장비의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380MHz 아날로그 시스템방식을 지역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이 관련 국산장비업체는 물론 지역 서비스 사업 희망업체, 미래의 가입자, 나아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확신한다.